

대학생의 춘추용 의복품목별 선호소재의 색 특성 연구 -상의와 하의용 의복소재의 비교-

김 희 숙* (해전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봄·가을에 선호하는 셔츠와 블라우스 및 슬랙스와 스커트용 소재의 색상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은 남녀대학생 109명으로, 의복소재 선호도 연구에서 조사된 각 의복품목별 선호직물 10종을 시료로 선정하고 색 특성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 선호하는 셔츠소재의 색상은 PB, Y계열 색상과 색조는 lt, bk,이며 무채색에 가까운 무난한 색상과 부드러운 색조 및 무채색의 black소재가 선호되었다.
2. 블라우스소재는 PB, R, YR색상과 d와 g 및 W색조가 선호되므로 중간 및 부드러운 색조의 유채색과 무채색의 white의 소재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의 의복소재로서 블라우스소재는 셔츠보다 순색에 근접한 다양한 색상으로 좀 더 화려하며 색조도 약간 강하고, 무채색으로는 셔츠는 black, 블라우스는 white가 선호되므로 전체적으로 블라우스는 셔츠에 비해 명도가 약간 낮고 난색계통의 색상이 더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4. 슬랙스용 소재로는 B, PB의 색상과 lt.g와 g, d, bk의 색조를 선호하여 부드럽거나 중간톤의 무채색에 가까운 유채색이나 무채색의 black 등 무난한 색상으로 셔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스커트 소재로는 YR과 PB의 색상과 lt.g, lt. d 등 밝고 부드럽거나 중간의 색조를 선호하며, 슬랙스보다 훨씬 다양하고 순색에 좀더 가까운 색상들이 선택되었다.
6. 하의용 소재로서 슬랙스와 스커트의 선호색상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슬랙스는 대체로 한색, 스커트는 난색계열을 선호하나, 공통적으로 선호되는 색상은 PB계열이며 스커트용 소재로는 좀 더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선호하므로 심미성이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선호소재의 무늬를 살펴보면 셔츠와 블라우스, 스커트와 슬랙스 모두 무지 직물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는 melange 직물을 많이 선택하였다.
8. 상의에 비해 하의소재는 대체적으로 체형을 축소해보일 수 있는 좀 더 어두운 색상이며, 색상의 밀집 정도가 좀 더 강하므로 하의보다는 상의소재의 색상이 상대적으로 좀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셔츠와 슬랙스는 무채색에 가까운 무난한 색상과 부드럽거나 중간 색조의 소재를 선호하고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좀 더 순색에 근접한 중간색조의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착용빈도가 높은 의복품목에는 무난하고 다른 의복과 잘 조화되며 싫증나지 않는 색상의 소재가 선호되고 비교적 착용빈도가 적고 특별한 경우에 착용하는 블라우스와 스커트 소재에는 개성과 심미성이 좀 더 고려되는 것으로 생각된다.